

#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빠짐없는 기출문제의 분석과 소화,  
자기진단을 토대로 한 논리적 답안구성 연습이 진행되는  
시험을 위한 행정학 강의!”

■ ■ 담 당 백 승 준

■ ■ 강의일정 2022년 4/25(월) ~ 5/17(화), 총 17회 ※월~금 강의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은 시험 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10분 ~ 5시30분  
※2회차부터 매일 복습형 실전모의고사가 진행되며, 실강반에도 필기자료를 제공합니다.

■ ■ 강의교재 행정학 WORKBOOK(제본집, 실비제공) + 최신수험자료(무료제공)

- ■ 강의특징
1. 철저한 자기진단을 토대로 논리적 답안구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강사가 직접 지도 합니다.
  2. 수험의 중심은 기출문제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판단 및 학습기준은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수험대비가 진행 됩니다.
  3. 정확하고 안전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험의 최신자료를 전달해 드립니다.
  4. 채점 시 점수획득에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사직접 지도의 1:1 답안첨삭을 진행합니다.

※ 수험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m-artist@daum.net) 혹은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백승준 행정학 <http://cafe.daum.net/newgovernance>』에 무엇이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회 차      날 짜

핵 심 강 의 주 제

■ 제 1 회      4월25일(월)

【3순환 OT】

행정학3순환 시작에 앞서 위밍업을 진행합니다.

행정학의 전체를 맵핑하고, 3순환 시험에 있어서의 준비사항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행정학의 전체적 정리를 통해 3순환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 제 2 회      4월26일(화)

【행정학의 발달 - 미국행정학 발달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과 비교】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미군정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영향력은 19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신공공관리를 통해 절정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이한 역사와 행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이론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행정이론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정통과 행정학의 등장과 완성, 1940년대부터의 정치학적 행정학으로의 복귀, 1960년대부터의 정책학과 실행행정학의 등장, 1980년대부터의 대통령과 행정윤리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하여서만, 미국의 행정학, 즉 현대행정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행정학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적 행정학 정립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 제 3 회      4월27일(수)

【행정철학과 공공가치】

공공가치(public value)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경험적 실증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위적 규범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됩니다.** 공공가치나 행정이념 윤리적 기준 등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행정인이나 조직의 행위적 지향점으로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출제되고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NPM이 풍미하던 시절 강조되던 시각을 벗어나, 공공성과 이에 기반을 둔 공익, 형평성, 가외성과 같은 가치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출제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 제 4 회      4월28일(목)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접근방법을 공부합니다. 행정학은 과학적 성격과, 진단과 처방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의학(醫學)과도 속성이 비슷한 응용학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보통 이러한 측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분야임은 분명하지만,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고유의 학문적 영역을 충분히 학습해야만 행정학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 제 5 회      4월29일(금)

신제도주의와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이미 기출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되었으며, 행정학의 발달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강조된 방법론을 매개로 많은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천모의시험을 통해 해당영역을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제 6 회 5월2일(월)

【New Public Management와 New Public Service】

지난 2009년 3월 신자유주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당시 고든 브라운 총리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선언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던 국제경제질서패러다임은 적어도 이제는 과거의 논의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행정학적 시각으로 환경의 변화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경쟁, 고객, 성과**의 신공공관리적 논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것일까요? 아울러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논의도 같이 다룹니다. Janet V. Denhardt와 Robert B. Denhardt는 행정서비스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강조하는 「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을 주장합니다. 이에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점을 각각의 패러다임이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NPM을 둘러싼 비판 등 출제가능한 논의를 모두 다루어 봅니다.

■ 제 7 회 5월3일(화)

【거버넌스】

국정운영에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는 해를 거듭하며 축적되는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만큼이나 논의의 통일성이 확립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정의가 되지만, 이에 더해 B. Guy. Peters의 거버넌스 등을 통해 행정학적 시각에서 연습해보도록 합니다. 수험적으로 너무나도 기본적인 소재여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버려서, 의외로 대비가 적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정부 · 시장 ·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정운영주체의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도 동시에 다룹니다.

■ 제 8 회 5월4일(수)

【전략적관리 - 전략기획 포함, 통합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행정학은 순수사회과학과는 달리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처방적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전략적 관리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방법론(methodology)』을 통해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공부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을 공부하게 됩니다.

현재의 행정운용의 많은 부분(특히 수험 각론)은 **전략관리(Strategic management)와 연계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성과관리예산 등 관련 이슈들을 확인합니다.

■ 제 9 회 5월5일(목)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최근 행정학의 주요 키워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입니다.**

이전에는 일반행정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에서나 언급되었을 전자정부의 논의가 행정학에 빈번히 들어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ICT와 행정의 융합적 관점을 통해 새로이 대두하는 분야에 충분히 공부하며 수험행정학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 제 10 회 5월6일(금)

【정책학과 정책수단론】

정부의 시장 및 사회영역의 개입은 정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본적 속성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수단론은 최근 행정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분야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활동(집행)의 독립변수로서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는 행정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실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하는 출제패턴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단순한 민간위탁 수준을 넘어서서 BTO, BTL 및 바우처(voucher)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사례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달과 규제, 조세지출 및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 등 출제가능한 모든 소재를 다룹니다.

■ 제 11 회 5월9일(월)

【인사행정론-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를 중심으로】

인사행정이란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입니다. 특히 학계의 큰 흐름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관점은 여러 차례 출제된바 있습니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공공인사행정을 다루어봅니다.

■ 제 12 회 5월10일(화)

【공공윤리】

인사행정과 공무원 윤리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공공가치와 맥락은 비슷하나 여기서는 주로 실무적 논의로 진행합니다.

■ 제 13 회 5월11일(수)

【조직 구조론】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조직설계의 기본변수와 상황요인, 기술과 조직등 조직구조론을 공부합니다.

막연한 이론적 논의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나, 사례형태의 문제를 통해 응용감각을 극대화해서 연습합니다.

이미 출제된 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4 회 5월12일(목)

【조직 행태론/갈등관리, 협상론】

이 부분에서는 관리차원에서의 조직론을 공부합니다. 조직을 관리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관심의 초점을 구조에서 사람으로 옮겨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이들을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갈등론과 협상론도 이 부분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협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의미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증폭하여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협상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 제 15 회    5월13일(금)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참여정부 기획예산처나 현정부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취합하여 현실정책을 완벽히 이해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재무행정론은 **뚜렷한 개혁적 성과가 많이 있음에도 중요성에 비해 출제가 많이 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올해의 출제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 16 회    5월16일(월)
- 제 17 회    5월17일(화)    **【행정의 변화관리】**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핵심은 문제해결능력으로 논의됩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시대에 정부능력향상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으로 귀결**됩니다. 기초수준에서 학습조직과 액션러닝등의 내용부터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의 동적인 과정과 전반과 함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제 기법들에 대해 연습합니다.  
무엇보다 『좋은게 좋다』는 식의 답안을 피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좋아하시고, 정부혁신자료로도 많이 채택되는 **OECD 보고서** 등과 **Harvard Business Review**의 논의들을 참고자료로 도입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혁과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의 자료와 더불어 정부혁신진단 매뉴얼 등을 통해 변화관리에 대해 수험적으로 접근해봅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